

우리建築의 反省과 21世紀를 向한 對備

特輯을 시작하며

건국이후 일어난 우리 건축환경의 변화는 정치적 사회적 그리고 경제적 성장과 변혁의 규모와 같이 엄청난 것이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사회의 다양화와 산업기술의 발달에서 비롯된 다양한 표현방식의 형성 등, 양적인 면에서의 놀라운 성취를 이룩하였음을 누구도 부인할 수는 없을 것이다. 다만, 급속한 수요의 확대에 따른 단순 대응으로 물량공급에 치중한 나머지 우리의 건축은 방향성을 상실한 채, 무분별한 외국의 양식을 모방한 無國籍의 표정으로 표피적이고 즉흥적인 환경을 가꾼 부분도 감출수 없는 사실로써 우리의 책임을 면키는 어려울 것이다.

今世紀를 마무리하고 21世紀의 길목에서 선 辛未年을 맞아 그러했던 지난 시대를 問題占을 점검하며 겸허한 반성을 바탕으로 한, 21세기를 향한 우리建築의 새로운 位相을 再定立할 時點에 놓여 있다.

本誌에서는 이러한 時代的 요청에 부응하고자 본 특집을 기획하여 우리 건축계 重鎮들의 意見開陳을 통해 우리 건축문화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現代建築의 反省	金熙春
우리建築環境의 反省	安秉義
專門化, 國際化와 우리의 現實	蔣應在
우리建築의 現況과 問題點	李範幸
21世紀를 向한 우리의 對應姿勢	成仁洙
갈 길은 멀고 험하다	趙仁淑

現代建築의 反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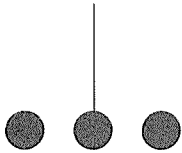
金熙春/서울大 名譽教授

○현대의 비극

“現代”라고 하는 시대가 갖는 비극의 근원은 技術文明의 進步와 生物體로서의 人間 本然의 要素와의 갈등으로부터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인류가 현재와 같은 고도의 技術文明 발전 속에서 그 삶을 영위하게 된 역사는 全 人類史의 과정에서 극히 짧은 최근에 지나지 않는다. 구체적으로 西歐에서는 산업혁명이후인 그 짧은 技術文明사 속에서 인간 스스로가 만든 인위적인 文明의 스톡(Stock)은 놀라운 가속도로 축적되기 시작하였고 결국은 인간 자신이 스스로 만들어낸 技術과 지혜, 정보 등의 폭발적인 스톡에 대한 제어능력을 상실하고 억압당하고마는 自家撞着의 모순에 빠져 버리고 만 것이다. 이것은 일찌기 중국의 철학자 老子가 주장한 “無爲自然”의 원칙에 거역한 자연이 인간에게 내려주는 보복의 섭리일런지도 모르겠다. 돌이켜 보면 60년대 초기에 있어서는 풍요로운 “技術文明”시대로의 이행이라고 하는 긍정적인고도 낙관적인 시대관이 내포되어 있었으며 이 무렵 선진국 경제성장의 상승세는 이러한 긍정적인 관점을 충분히 뒷받침하고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70년대 이후 세계도처에 있어서의 국제적인 분쟁의 불안과 개발일변도의 산업기술의 진보주의 및 인구증가와 도시확대화 등으로 야기된 자원고갈 및 환경문제와 결집된 世紀末的 현상은 최근의 동구권의 개방, 화합정책에도 불구하고 2차레에 걸친 세계 대전이후에 또다른 비판적인 전망을 예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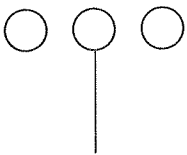
특히 환경문제에의 구체적인 인식은 70년대 초반 지구상의 가속적인 성장과 진보가 갖는 한계가 냉철하게 可測的으로 보여졌고 나아가서는 범세계적 차원의 성장에 대한 “計劃的 제어”의 공동의 노력이 수반되지 않는 한 지구의 성장은 늦어도 향후 5~60년 이내에 급격한 퇴보의 징후를 보이게 된다는 연구결과로부터 출발된 것 같다. 그러나 실제로 세계의 대부분의 국가들에 있어서는 공동의 궁극적인 이익과 생존을 향한 성장제어의 노력보다는 오히려 “自國主義”에 입각하여 개발과 진보일로의 성장가속화를 더욱 추진하고 있는 실정인 것이며 이 결과 세계도처에서 나타나는 인구, 자원, 식량, 오염 그리고 기상이변 등 환경문제의 제반문제들은 연구보고서의 可測들이 점차로 현실의 징후로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특히 향후 20년내지에 근 100%의 인구증가가 예측되는 한국으로서는 이러한 인구의 증가분을 담는 그릇으로서의 定住環境의 터전을 구비하는데 있어서 현재도 그러하듯이 더욱 많은 물량, 인력과 재정의 투입이 예상되는 동시에 정주터전으로서의 대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자연환경의 침식이 낳은 “人間生態學”적 불균형과 그로 인하여 야기되는 환경문제의 대처 또한 심상치 않은 큰 과제의 하나가 아닐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의 “國土空間”이 파괴로 치달을 것인가 아니면 선진국의 노력과 先驗 그리고 시행착오를 주시하여 보다 질서있는 정주환경의 터전으로 개발할 것인가 하는 양자택일의 과제는 과거의 반성과 동시에 이 시대 우리 모두에게 남겨진 주요문제인 것이다.



한국건축은 한국 근대사의 비극만큼이나 그 정통성이 계승될 충분한 배양액을 갖지 못하고 오늘에 이르렀다. 내적성숙이 성취될 겨를이 없이 항상 외적인 의식이 몰아다쳤고 여하히 그것에 적용하는가에 급급한 과정이 과정이 韓國의 現代建築史를 이끌어온 것임을 이제 반성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다.

이제 21세기를 향한 새로운 건축세대로의 이행이 시도되어야 할 시점에서 환경의 위기를 극복하고 대처하는 방도를 제시하는 의무와 권리는 아울러 우리 건축전문가가 지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부단한 제도와 의식의 개편 그리고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믿는다.



○建築思潮의 변천

근대건축의 출발은 통념적으로 산업혁명을 전후한 시기에 두게 되며 그 변화의 내용은 크게 두가지로 대별될 수 있으며 그 한가지는 새로운 산업사회적 기술적인 요망에 부응하는 새로운 건축상을 모색하고자 하는 방향과 이에 대하여 다른 한가지는 反産業主義의이고 復古的인 과도기적사실로서 나타난 건축의 여러가지 경향으로써 구분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결국 구성적사실로서의 전자의 경향이 20세기 건축이념의 모체로 이어지고 후자의 경향은 그러한 전자의 이행과정에 대한 반작용적 징검다리로서의 과도기적 역할밖에 할 수 없었다는 사실이다.

그리하여 1920년대에 들어와서 건축의 영역에 있어서 사조의 급진전을 보이고 있는데 그것은 20세기적인 건축의 진가를 찾아내어 새로운 건축으로 구현한 Le Corbusier, Mies van der Rohe, F.L. Wright, A. Aalto 등 거장 건축가의 탄생인 것이며 이로부터 「英雄主義」 「國際主義」 「機能主義」 등으로 불리우는 현대건축의 새로운 기점을 맞게 된다. 이들의 천재성으로 말미암아 현대건축은 성숙기에 들어가게 되었으며 오늘날에 있어서도 전면 부정되지 못하는 위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의 이념은 확일성 단순성 등 기계미와 편익성을 강조하는 기능주의 미학과 보편성과 규격화라고 하는 실용주의의 정신을 건축의 표현으로써 잘 소화해 내었던 것이지만 이들은 기능과 “건축공간과 형태”사이의 합목적적 연관을 추구하는 건축작업의 과정에 있어서 그 건축속에 내포되는 현실적인 인간의 관점에서 보아도 그들의 이상주의 내지는 개인주의적 야심과 독선에 우선을 부여하였다는 점에서 “英雄主義”라는 칭호를 받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이들 거장 건축가들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공적은 건축의 문제를 최초로 도시와 주거의 문제로 확대시킨 의지였다고 본다.

이 무렵 세계는 전술한 바와 같은 소위 후기산업사회 또는 전자사회로 이행하게 되며 이러한 이행의 반영으로서 “전체보다 부분을, 고정보다 변화를 조직보다는 개인을”이라고 하는 슬로건을 최후 CIAM 회의를 향하여 준비한 “Team 10”의 건축가들이 거장 건축가들에 대한 공격으로 인하여 국제주의 건축운동은 종식을 고하게 되고 이로부터 현대건축의 새로운 기점이 성립하게 된다.

이후의 현대건축의 경향은 극히 혼돈스러워서 한마디로 대변하기는 힘들지만 대체로 그것은 현대건축의 이념과 방법의 바탕위에 현대적인 요구를 상응 진화시키고자 하는 後期現代主義(Late Modernism)적인 경향과 현대건축의 이념을 근원적으로 부정하고 건축을 만드는 문법을 원점에서부터 재구성하고자 하는 脫現代主義(Post Modernism)적인 경향으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포스트모더니즘”은 한 뚜렷한 이념을 갖는 “ism”이라기 보다는 무언가 현대건축과는 달려져야만 하겠다는 현대건축의 원점을 향한 구미 신진건축세대들의 다양한 표현일런지는 모르는 것으로서 R. Venturi의 저서가 비로소 그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와같이 建築史의 주요한 맥락을 돌이켜 볼 때 혼성과 부조화 그리고 복고를 표방하는 경향들은 으레히 새로운 시대의 의지를 주도하고 반영하는 새로운 경향들에 의해 결국 굴복하여 도태되곤 하였던 것이다. 어쨌든 「현대주의」는 20세기말 통일된 건축이념으로 집약되지 않는 상태에서 극도의 「개인주의」 「감각주의」의 표방 등 저마다의 다양한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또한 이들의 난해한 건축적 표현과 그럴싸한 관념어휘들은 상업주의적인 경쟁이 심한 미국에서 독보성을 인정받고자 하는 노력이며 뿌리없는 이념일런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Team 10”으로부터 「탈현대주의」에 이르는 현대건축의 경향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추구되어 온 의지중의 하나는 현대건축에서 상실되었던 것, 즉 건축 및 도시의 제반 정주환경과 그것이 속한 시대와 지역 그리고 그속에 담겨어지는 현실의 인간이 그 환경과 맺는 심리적 기능적 상징적 연쇄관계에 관하여 새로이 人本主義的 관심을 쏟고자하는 소위 風土主義의 경향일 것이다. 이는 면에서 토속적인 전통건축이 갖는 “인간환경”을 의도적으로 정주환경속에 회복시키고자 하는 반성이기도 한 것이다.

○앞으로의 과제

한국건축은 한국 근대사의 비극만큼이나 그 정통성이 계승될 충분한 배양액을 갖지 못하고 오늘에 이르렀다. 내적성숙이 성취될 겨를이 없이 항상 외적인 의식이 몰아닥쳤고 여하히 그것에 적응하는가에 급급한 과정이 韓國의 現代建築史를 이끌어온 것임을 이제 반성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다.

이제 21세기를 향한 새로운 건축세대로의 이행이 시도되어야 할 시점에서 환경의 위기를 극복하고 대처하는 방도를 제시하는 의무와 권리는 아울러 우리 건축전문가가 지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부단한 제도와 의식의 개편 그리고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믿는다. 그리고 건축은 현실적인 생활범주 안에서 만들어지고 또한 그 생활과 같이 변화하고 발전하게 될 것이다. 이 생활이라고 하는 것의 특성은 그 지역 그 시대마다 다르다고 볼 수 있으며 또한 그 특성들은 모든 문화를 생성하는 주체들에게 영향을 미치며 항상 변화하는 유기체의 역할을 하게 된다. 그런 의미에서 건축은 생활의 “패턴”과 사회제도 사회구조와 遊離된 상태에서 평가되거나 이해될 수 없다.

현재 우리의 생활에 있어서 쾌락적이고 소비지향적인 풍조가 높아가고 있다.

이러한 경향에 힘입어 서구의 20세기말적 건축사조, 이른바 “Post Modernism”이니 하는 요소들을 무분별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그러나 서구의 이러한 건축사조의 변천에는 그들 나름대로의 뿌리가 있으며 그들의 문화발전의 역사적 과정이라고도 볼 수 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 근거를 둔 표현으로 건전하고 풍부한 삶이 되도록 그 목표를 세워야 할 것이다.

우리建築環境의 反省

安秉義/종합건축사사무소 향건축

한해를 보내면서 돌이켜 생각해, 지난해는 多事多難했다고 이야기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새해를 이룩하자고 다짐한다. 지난 일년전의 새해 때도 그랬었을 것이다. 그러나 어영부영 자랑스러운 기억보다 수치스러운 일로 한해를 마감했다.

정치가 그랬고, 경제가, 그리고 사회전반이 돌이켜보고 싶지도 않은 일로 가득찬 한해였다. 건축계도 별로 이렇다할 자랑스러운 일로 채워진 한해는 아니었다.

사회가 매마르고 각박하게 돌아가는 판에 건축계라고 별수가 있었을리 없다. 지난번 건축사협회 지부임원 선거는 좀 볼품사나왔다.

왜 그렇게 많은 후보자들이 입후보하는지 통 모를 일이다. 과연 그들을 움직이는 핵심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 명예욕인가, 다소의 경제적인 이익이라도 있던 말인가.

흔히 정치인들을 나무래지만 내가 보기에는 건축사들의 선거운동 또한 별 칭찬할 일이 못된다.

입후보자들의 선거에 내세운 공약 또한 정치가들의 식언과 별다른 차이가 없었다.

누가 임원이 되어야한다고 아웅다웅하는 것보다 더 힘써야할 것들이 많다. 그중에서도 건축관련 법규의 정비는 시급한 실정이다. 일본 제정때 쓰던 건축법규를 그때 그때 짜깁기 하고, 손을 보아 쓰고 있는 건축과 도시계획관련의 법규들은 새로운 시대에 알맞게 근본적으로 뜯어고쳐야겠다. 쓰인 어휘나 법해석의 정신 또한 명확치 않고 뚜렷하지 않다.

건축계획을 하다보면, 그릇된 법규때문에 건축의 창조적인 면이 고스란히 희생되어야 하는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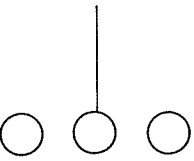
법은 사용자의 안전과 건축가의 창의성이 심분 발휘될 수 있도록 근본적으로 뜯어고쳐야겠다.

종합이니 단독이니 하는 제도 또한 오랫동안 왈가왈부해왔지만, 그리고 역대 건축사협회장의 입후보연설에서도 한결같이 이 제도를 폐지하겠다고 다짐했으나 오늘에 이르기까지 감감소식이다.

내기억에도 이 제도는 약 20여년전에 구청앞의 대서사출신의 영세설계사무소를 치기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이제는 이 제도가 있어야 할 당위성이 상실됐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 만들어진 법은 비록 그것이 악법일지라도 그 亡靈이 남아 우리를 괴롭힌다.

공교롭게도 변호사사무소들이 합동이라는 이름 밑에 복수의 사무소들이 모여있는 것과 같은 발상인데 아무리 생각해도 박정희정권때의 봉건적인 사고방식에서 우리나라에 제도에 지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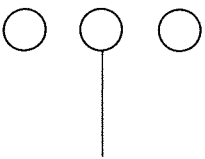
또하나, 수십 여년 이어지면서 많은 건축가지방생들을 괴롭히고 있는 것이 건축사 시험제도이다. 해마다 100대1 정도의 경쟁을 거쳐야 하는데, 아마도 고등고시에 비견할 만한 힘든 난관이다. 이 제도는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그 첫째는, 너무 힘들다는 점이다. 도시 건축사시험은 건축사가 될 수 있겠는가를 묻는 한날 자격시험에 지나지 않는다.



언젠가, 백남준(白南準)씨의 예술관을 신문에서 읽었는데, 왜 뉴욕에서 사는가 하는 기자의 질문에 그는 예술을 하려면 120퍼센트의 자유가 보장된 곳에 살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까놓고 말해서 우리들은 이런 자유가 보장되어 있지 않다. 도저히 빛나는 예술의 싹이 마음놓고 움트고 자랄 환경이 아니다.

우리가 건설부에게 바라는 것도 이러한 자율적인 분위기이다. 그런 환경 속에 우리들은 작금의 건축디자인의 방향을 살피고 분석하고 생각하여 과연 올바른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는가를 알아야겠다.



專門化, 國際化와 우리의 現實

藏應在 / (주)원도시건축 종합건축사사무소

□ 흔히들 요즘을 「전문가」의 시대라 칭하는 사람이 많다.

사회가 복잡해지고 정치, 경제 및 모든 분야가 고도의 기술과 지식을 필요로 하는 사회가 되고보니 보통의 사람이 이 모든 분야를 「전문가」의 수준으로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분야별로 경험과 기술을 축적한 「전문가」에게 일반인은 의존하게 되고 이와 같은 행위가 다 금전으로 환산이 되는 시대에 살고 있는 셈이다.

또 「국제화」되는 시대에 살고 있다고 이야기한다. 과학과 문명의 발달에 의해 지구상에 있는 어느나라도 더이상 「홀로」일 수 없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주위의 영향과 역학관계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시대가 되고보니 「국제화」란 어휘가 실감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단순히 거리나 시간적으로 단축된 「국제화」가 아니라 주위의 변화나 발전이 급속하게 진행, 파급되므로 그에 대처하는 것이 단순하지 않을 것이 확실하다. 과거의 정치적 이데올로기의 블록화 시대에서 최근 경제적 공동이익의 지역에 의한 블록화로 재편성되는 것을 EC 나 「아세안」등에서 의식할 수 있으며 전세계, 힘과 부의 상징이던 미국이, 아직은 그 위력을 유지하는 셈이지만 점차 경제적으로 뒤져가고 기술적 초강대국의 자리에서 밀려나는 변화를 이제는 부인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이와 같은 변화가 이제 겨우 선진화의 문앞에 도달한 우리에게 그리 이롭지 못한 「압력」으로 되돌려 받는 느낌이며 못살아서 도움을 받던 시대에서 잘살아서(?) 내놓는 시대로 「강요」되는 듯한 상황에 도달된 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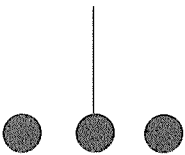
국내적으로는 60년대부터 출발한 성장위주의 정책과 「잘살아보자」는 노력에 의해 70년대, 1000불 GNP 달성을 앞당겨 성취했으며 국제경쟁력을 육성하기 위해 대기업을 육성한 결과 자본과 기술력의 집중화가 이뤄졌으며 결과적으로 균형 발전을 이루지 못한 점이 크게 부작용을 낳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한다. 또 더욱 일부 국제적 수준에 도달된 경쟁력 있는 기업에 의해, 외형적인 GNP의 성장에 힘입어 국민들의 기대심리가 과대하게 팽창되었으며, 실제로 정부 주도형이 보호육성에 상당하게 의존해온 점 또한 취약점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제 이와같은 「전문화」 「국제화」되는 사회 일반적인 배경과 「선진화」를 향한 경제활동 속에서 우리들 「건축인」의 입장에서 조금더 축소하여 건축설계에 종사하는 「건축사」업무로서의 전문화, 국제화는 어느 수준으로 파악되어지며, 실효성있는 노력은 과연 어떤 것인가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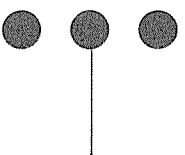
□ 「건축의 전문화」란 국제적인 의미로 무엇을 이야기함인가?

다른 분야에 대비되는 「건축」이라는 의미로서의 「건축의 전문화」란 쉽게 이해될 수 있으나, 건축분야의 「전문화」, 또는 건축설계 분야의 「전문화」란 어떻게 정의될 수 있는지 확실하지 않는 점을 볼 수 있다.

설계, 시공, 기획, 행정 등의 「전문화」로의 분류가 될 수 있고 구조, 기계, 전기, 조경, 실내디자인, 그래픽 등 건축계획 또는 이와 관련을 갖는 대개의 순수디자이너 아닌 기술적 전문분야로 나열되는 부분이 있으며, 특수한 기술과 경험을 필요로 하는



무척이나 많은 용역비를 지불해가며 국내의 관계법규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외국건축가에게, 드물지만 수주된 사실을 우리는 직시해야 하며 우리 「건축사」들은 우리자신으로부터의 변혁을 생각해야 할 때가 아닐까. 우리는 항상 이와같은 논의가 있을 경우마다, 자신의 눈앞의 이익에만 집착하고 정부의 보호책이나 무조건적인 저지에만 목소리를 높여온 것이 사실이며 긍정적 대비책이나 또 우리들 자신의 소화능력이나 일반인에 대한 건축용역의 인식수준을 높이는데 「건축사」스스로 얼마나 노력해 왔는지를 각자에게 자문해볼 필요가 있다.



재료나 그 시스템의 개발이나, 음향관계, 에레베타 엔지니어링 등에 이르면 너무나 많은 「전문화」로의 분류가 있을 수 있다.

이와같이 「건축전문화」라는 용어는 건축행위의 기술적 측면에서의 파악과 경제활동에서의 건축분야에 대한 일반의 인식이 그렇게 혼재되어 쓰여지고 있는 어휘로 보인다.

의사직업에 「전문의」제도가 있고 건축과 유사한 업종으로 파악되는 토목분야에 도로, 항만, 상하수도 등등의 많은 「전문화」가 이뤄져 있으며 시공회사보다는 토목용역회사의 경우 엄밀하게 「전문화」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건축에서도 건축용도별 분류에 의한 설계용역의 전문화를 이야기하는 경우를 많이 접한다. 그러나 필자의 생각으로는 건축설계 용역의 경우 타분야와 같은 전문화 분류와 건축용도별 전문화를 동일 위계의 분류로 판단할 성질이 아니라고 생각된다.

물론 현실적으로 유사한 용도의 설계가 반복되므로서 타용역자 보다는 경험에 의한 강점을 갖는 점을 볼 수 있으며 왕왕 실적위주로의 건축설계사무소를 선택하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이러한 「전문화」에 대한 생각을 반영한다고 느껴진다.

그러나 필자의 생각으로는 주거, 상업, 위락, 의료, 교육 등의 분류에 의한 「전문화」는 「건축가」위주의 설계조직으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생각된다. 「기술자」위주의 설계조직과 「건축가」위주의 설계조직을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필자의 생각으로 특수한 경험과 기술의 축적에 의한 「전문기술자」라는 의미는 이해되나, 「전문건축가」나 「전문건축사」라는 말은 성립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건축가」의 경우 특수부문의 전문기술이 필요할 경우 그 분야의 「전문가」와 협력하여 용역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건축의 전문화」보다는 「건축기술의 전문화」로 사용되어야 되지 않을까.

□ 「국제화」되는 사회와 경제의 일반적 경향은 전체적인 흐름으로서 인식되어야 하며, 그에 의한 부정적 측면보다는 긍정적 측면으로 받아들여지고 소화되어야 하는 것이 건축인에게 부과된 과제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이러한 흐름에 역류하려는 것은 아니나, 자발적이고 내면적 필요에 의한 발로가 아닌 외부적인 압력이나 정부시책에 의해 「국제화」 또는 「국제경쟁력」이 항상 거론되는 것에 거부스러움이 있는 것이다.

우루과이 라운드에 의한 전면적 기술 및 생산품에 대한 보호주의 철폐에 의한 개방도 이러한 맥락에서 불리한 측면으로 받아들여지고 정부에 의한 건설기술관리법이나 종합건설업 면허제도 등도 국제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용역업체의 조직화, 대형화를 유도할 것이나, 국내 건축설계 현실로서는 많은 우려와 반대를 볼 수가 있다. 자동차, 전자, 섬유 등의 타분야의 경우 국제경쟁력이나 기업의 성장이 대단한 수준에 이른 것이 사실이다.

과연 업계와 학계가 입을 모아 「선진국」이 되었음을 자랑하고 이제 세계 어느곳에도 한국인과 한국상품이 미치지 못하는 곳이 없을 정도로 우리의 경제력이 성장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면 우리의 용역업계도 타분야만큼 「국제적」수준으로

성장하였으며 건축설계에 대한 일반의 인식도 국제적수준에 도달되었는가?

필자의 소견으로는 국내 절대다수의 설계사무소가 극히 영세한 수준이며 용역의 질적인 수준도 높다고 할 수 없으며 상대적으로 일반의 건축설계 용역에 대한 인식수준도 낮아서 서로 악순환되는 것이 현실로 보이는 때 타분야를 의식한 「국제경쟁력」을 거론함이 여간 거북스러운 것이 아니다.

현실적으로 대기업들에 의해, 법적인 설계용역업은 못하더라도 실질적인 설계행위가 이뤄져 왔던 것이 사실이며 아무리 제도적 보호책이 마련되어 있어도 서울의 거리에서 외국건축가의 작품이 세워지고 있음을 우리는 직시해야 하지 않을까!

용역의 개방이 시행된다고 해서 국내의 용역비수준과 건축설계용역에 대한 초보적인 인식수준에서 외국의 용역회사가 어떻게 소화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하겠는가.

오히려 그들의 처리능력과 용역비의 수준에서 국내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바탕을 만들 수 있는 점이 더 긍정적일 수 있지 않을까.

또 설계에서 시공까지 일괄수주능력을 부여하는 「종합건설업법」이 시행되면 우리 「건축사」들의 설계수수량이 급방 줄어들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과민한 생각이 아닐까.

대단위 프로젝트에 대한 일괄발주방법은 프로젝트의 성격상 그 합리성이 인정될 수 있으며 설계·시공의 중첩식 추진등의 방법에 의해 공기와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는 점도 긍정적 측면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또 현재와 같이 공사비와 효율체계에 의한 용역비 산출의 경우 일정규모 이상의 경우가 아니고는 건설회사에서 설계팀을 유지하는 것이 비경제적일 것으로 판단되며 더욱 「건축가」위주의 설계조직으로서의 기능성은 더욱 어려울 것이므로 그 작업의 「질」을 높이는 방법이 중요점일 것이다.

반대로 그와같은 규모의 프로젝트에 현실적으로 소화능력을 가진 설계사무소가 과연 얼마나 될 것인지는 의문점이며 자신의 현실적 능력을 도외시한 「나뉘먹는 떡」으로서 용역을 생각한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일이다.

필자의 생각으로는 대형조직에 의한 대형프로젝트의 소화측면에서 건축계의 소화능력을 확대하는 측면에서 이해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무척이나 많은 용역비를 지불해가며 국내의 관계법규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외국건축가에게, 드물지만 수주된 사실을 우리는 직시해야 하며 우리 「건축사」들은 우리자신으로부터의 변혁을 생각해야 할 때가 아닐까.

우리는 항상 이와같은 논의가 있을 경우마다, 자신의 눈앞의 이익에만 집착하고 정부의 보호책이나 무조건적인 저지에만 목소리를 높여온 것이 사실이며 긍정적 대비책이나 또 우리들 자신의 소화능력이나 일반인에 대한 건축용역의 인식수준을 높이는데 「건축사」스스로 얼마나 노력해 왔는지를 각자에게 자문해볼 필요가 있다.

우리建築의 現況과 問題點

李範宰/단국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

'90년대의 첫번 해를 마무리짓고 辛未年 새해를 맞았다. 사실 90년대에 들어오면서 여러가지의 불확실한 요소가 여기저기에 도사리고 있었으며, 이러한 불확실한 점으로 해서 우리가 대처하여야하는 대응태도도 불명확할 수 밖에 없었다 하겠다. 그러나 이러한 여러가지의 문제점 속에서도 우리가 의연히 가지고 있어야하는 근본적인 태도는 있어야하는 것은 물론 사실인 것인데, 이러한 태도가 사회의 변혁과 사회환경의 불확실한 점때문에 포기하여서는 안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으로 보아 몇가지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하여 이야기하고자 한다. 건축 사회 환경적인 차원, 건축적인 제반제도, 건축인 자신의 자질과 태도, 통념적인 차원에서의 건축계등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1. 건축사회 환경적 차원의 문제

우선 우리가 건축을 어떻게 하는가 하는 문제이다. 이것을 청교도적인 입장에서 논하고자 하는 것은 물론 아니다. 여기에는 현실적인 문제가 깊이 개입되거나 개인적인 경제사황이 깊이 놓여져 있다는 것을 이해하여야 한다. 그러나 시대적으로는 건축가(건축사, 설계사, 기사 등으로 혼동되어 사용되고 있는 것을 총칭하기로 한다)의 의미와 역할이 얼마나 변했는지 하는 것을 명확히 하여야 하는 시점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전지전능하였던 건축가의 이미지와 역할이 근대 건축시대의 종료에 의해 변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가 주시하여야 할 것은 미국의 필립 존슨과 같은 건축가의 변신일 것이다. 그는 근대건축의 제 2세대로서 건축을 시작하였으나 포스트 모더니스트로서의 역할을 하였음은 물론 이제는 소위 해체주의건축에 대한 깊은 관여로서 자신의 건축세계를 확장해왔던 것이다. 우리의 개념으로 보면 이것은 소위 신념없는 건축가로 보일지도 모르나 이만큼 자기자신에 대한 책임을 지는, 변화에 대응하는 유연성있고 자신있는 행동도 힘들다고 할 수 있다. 우리는 과연 이러한 변신에 대한 하나의 신념이나 견해를 가질 수 있는가?

건축을 대하는 근본적인 자신의 태도가 명확해야 이러한 변화에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것은 순수한 건축가의 기본적인 자질이라고도 할 수 있는, 반면에 어쩔 수 없는 사회환경 속에 받아지는 영향도 크다 하겠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러한 건축환경은 어떠한 것일까? 결국은 통제 속에서의 제한되어진 창작과 영세성 속의 아트리에 작업환경이라고 할 수 있다. 건축법이나 제반 법에 의한 통제는 이제 자율적인 자체 제어장치로 바뀌어 나아가야 할 것이다. 여기서의 중요한 정신의 하나는 건축가들을 믿지 못하는 자체 불신감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누구를 원망하기 보다는 우리들 자신의 작업자득이라고도 생각되어진다. 건축주와의 관계 속에서 서로 비난하고 서로를 비방하였기 때문이고 건축물과 그 환경의 자신있는 제공자로서 또는 그 자신이 주체로서 행동하기를 주저하였기 때문이다. 하나의 사회적인 철학과 개념을 제시하지 못함으로써 건축가들 스스로 자신의 입지를 좁게 만들었다. 통념적

아직 우리는 외국의 빠른 변화에 대응하려는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할 수 없다. 더우기 우리나라의 다른 분야에 비하여 건축은 아직도 그 패턴 자체가 외국건축의 모방과 외국조류의 흡입에 활력을 의지하고 있다고 한다면 과연이라고 할 것인지? 우리의 오리지널리티를 확고히 계발하여야 할 때라고 생각하여야 할 것이다. 과연 그것이 건축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자리잡아야 할 것인지는 우리의 노력에 전적으로 달려있는 것이다.

사회적인 의미로 건축가가 하나의 사상가로서 뚜렷한 대우를 받는
외국의 예에 전혀 미칠 수 없는 “업자”의 입장에 스스로
만족하였다고도 할 수 있다.

2. 건축제도 및 운용

건축법규나 제반 통제에 있어서 가장 문제가 될 수 있다면, 그
집행과 적용과정이 불공평하고 시간에 따라 너무 변화가 크며,
관청에서의 융통성이 너무 다양하다는 점이다. 같은 상황에 대하여
해석이 다 다를 수 있다는 점이 사실 실무에 접해보는 사람들이
가장 당황하는 점이다. 건축가의 건축에 대한 여러가지 창작과
개념이 허가업무나 법에 대한 해석으로 인하여 단호히 변질되는
경험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 심지어는
건축허가 담당자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의 불이익을 고려하여
건축가만이 해야할 디자인의 분야가 침해되는 경험도 있을 것이다.
스스로들은 이것을 소위 건축가들과 건축주에 의해 이루어지는
불법을 미리 예방하기 위한 엄격한 법의 시행이라고 하고 있지만
건축허가의 과정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각종 심의와 협의 과정,
각종 통제와 조건들의 이행이 과연 얼마나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는지 생각하고 넘어가야 할 일이 아닌지? 공공연한 비밀이지만
아무도 이야기하지 못하는 숨겨진 부조리가 도처에 있음을 부인할
수가 없다. 허가과정에서의 금전의 수수와 기술적인 부정, 소위
우리 건축 사회에 남겨져 있는 테크니컬 파울(Technical Fual)에
우리가 너무 숙달되고 체념하고 있음이 아닌지? 우리의
건축가들이 더 좋은 것을 만들기 위해 사용할 시간이 이러한
어이없는 손해로 인한 일(Faul Bussiness)로 인하여 빼앗고 있는
것이다.

각 자치단체마다 심의를 위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 나름대로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사실 이러한 심의를 받는다는 것 자체가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요구당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심의의
시간을 택하는 것부터가 정치 사회적인 영향과 환경의 지배를 잘
고려하여야만 하는 것도 사실이며, 이러한 것은 민주 자본주의
사회에서 통상적인 것이라고 하여 넘어간다 하더라도, 미리
찾아가서 안을 설명하여야 하고 적당한 의미의 저자세를
가져야하며, 심의의 안 자체보다 어느 때는 심의위원의 개인
취향도 있으면 안되는 등의 노고를 고려하여야 하는 것이 다
실제의 상황이라 하겠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축 사회적인
환경에서 이러한 개인적이고 독선적이며 불필요한 일들이
사라져야만 우리가 대등한 국제적인 건축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건축가가 생각하고 실현하고 싶은 사상이 행정적인
편이나 개인적인 취향과 감정으로 무참히 잘려나가야 되겠는지
정말로 심각히 생각할 일이 아니겠는가?

급년에는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어 가는 해라고 할 수
있다. 그로 인하여 건축계에도 얼마간의 영향이 미칠 것인지는
아직 정확히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그러나 한가지 자기
지방나름대로의 토속적인 의미의 건축의 가능성이 증가할 수
있다는 점이다. 상당히 막연한 이야기라고 할 것이나,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서울에만 집중되어 있는 건축문화가 점차 보편성을 갖고
각지방에 전파되어 갈 수 있다는 점과 각 지방의 특수한 사정과
요소를 접합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생긴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잘못되면, 역시 지역적인 폐쇄성을 동시에 갖게된다는
부작용도 고려하여야 한다. 지금은 어디를 가도 같은 모양과 같은
패턴을 가진, 특색없는 도시들이 각자 특수성을 갖는 도시로서
새롭게 변화할 것이라고 생각되어진다. 보편성과 특수성, 이
두가지의 장점이 자치를 통하여 건축계에 나타날 것으로
기대되어진다.

3. 건축보수와 종합건축사사무소의 개념

건축과 건축가의 작업을 기술적인 전문가로서 이해함으로써 해서,
건축기술을 이용하여 그에 대한 보수를 얻는 것으로 당연히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럴 때에 그 보수의 다소를 결정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따르게 된다. 결국 여기에서 물리적으로는 절대로
계량이 될 수 없는 디자인이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 의사가,
처방해주는 약값과 사용되는 의료가자재의 사용료를 근거로 하여
진료비를 받을 수 있지 않은 것과도 같고, 화가가 그림을 그
그림물감값으로 환산하여 그림값을 받지 않는 것과 같다. 설계비의
산정에 이러한 어려운 비물성적인 차원이 있음으로 해서 설계비의
자율화를 언젠가 한번 글로서 이야기한 바도 있다. 지방자치의
시행에 있어 각 지역에 이러한 설계비의 자율화를 도입하는
방향으로의 연구도 같이 병행해 보았으면 한다.

실제로 현재의 설계비의 요율을 가지고 설계행위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을 진다는 것은 무리로 보여진다. 반면에 이러한
설계비의 요율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형편도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이러한 현실을 우리가 직시한다면, 설계비를 대폭
올린다고 해서 이러한 이율적인 현상이 해결될 수는 없을 것이다.
한편은 지금의 설계비 요율대로 받으면 적다고 하면서 엄연히
지금의 요율의 심지어는 반정도라도 설계행위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어떻게 설명하여야 하는 것인지? 그것은 그 대상과 행위의
범위가 다르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되어지는 바이다. 따라서
능력있는 건축주들은 능력있고 규모가 있는 설계사무소나
건축가들에게 많은 보수를 지불함으로써 자신의 건축물에 대한
부가가치를 향상시키게 할 것이며, 서민이나 하위 중산계층에게는
저렴한 설계비로서 부담을 줄여나갈 수 있는 것이라 생각할 수는
없을까? 이는 건축가 상호간에 선의의 경쟁을 인정하는 상식이
전반적으로 이해되어야 하겠지만, 이를 악용하는 사람도 초기에는
있을 것이며 당연히 나중에는 도태될 것으로 보아진다. 건축가
상호간의 경쟁은 결국 건축가들 모두가 같은 배를 타고 있다는
동질감의 회복이 될 것이다. 서로가 서로를 아껴야 된다는 것이
사실로 받아들여지면 이 설계비의 자율화가 더욱 쉬워질 것이다.

우리가 설계비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에 대한 명확한 개념도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사실 우리의 설계비 속에는 엄밀한 의미의
계획비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이다. 초기의 계획을 하기 위한
연구비도 포함되어있지 않다. 마스터플랜을 요구하는 프로젝트의

경우 이의 적용항목이 없어서 다른 기준을 원용하거나 계획설계비의 일부를 구차하게 차용하는 방법을 쓰고 있기도 하다. 계획설계비, 기본설계비, 실시설계비, 감리비 등의 구분을 초기계획 및 연구 또는 기본 구상비, 설계비, 감리비 등으로 크게 분류하던가, 또는 기본연구비, 계획비, 허가설계비, 실시설계비, 행정감리비, 감리지도비 등으로 세분하여, 업무에 따른 선별 협약과 계약이 가능하게 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다. 감리부분의 업무가 명확히 되어야 할 것이다. 감리와 감독을 혼동하는 건축주들의 오해 여지도 있을 수 있으며, 감리의 참뜻이 시공과정의 융통성있는 디자인 디벨로프라는 개념이 건축가 자신들도 의외로 갖고 있지 못함으로써 실제로는 시공자가 하여야 하는 시공도의 보완이나 제작의 협조와 공정의 검토 보조자화 되어버리는 경우도 있다고 하겠다. 건축감리는 시공과정에서 도면대로 시공하는가를 감시하는 역할이 아니라 더 나은 건축물을 위한 변경가능성을 끊임없이 제시하여주는 역할이라고 하겠다.

종합건축사사무소라는 개념의 출발에 대해 알가알부할 것은 아니나 결국 이 개념이 성공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것 같지 않다. 건축사 3인이 같은 사무소명칭을 사용하고 있으나 모든 것이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무소가 대부분인 것이다. 이것이 지역에 따라서는 일종의 신디케이트화되어 있어서 건축계로서나 건축주의 편에서나 다같이 바람직하지 못한 면도 있다. 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현실은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인의 건축사들로 이루어진 종합건축사사무소도 믿지 못한다하여 다른 종합건축사사무소의 보증을 받아오라는 건축주도 있는 현실이니, 그러면 이런 경우는 최소 6명이 보증하는 것이 됨에 얼마나 여처구니 없는 현상인가? 따라서 불필요하고 현실성이 없는 종합건축사사무소를 없애서 그것을 하기 위한 이합집산과 시간과

장소의 낭비를 없앴으면 한다. 보증이 필요하면, 다른 건축사무소가 보증을 하던가 하는 간편한 방법을 택하여 주었으면 충분하지 않은가 하고 생각된다.

4. 맺음

'90년대의 첫해가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바는 적지 않다고 생각된다. 국제적으로는 다 아다시피 냉전의 종식으로 일컬어지는 여러가지 현상이 정착되고 있고 독일이 통일되는가 하면, 경제적인 세계대전인 우루과이 협상이 결렬되어 우리네 살림에 여러가지 고통과 어려움이 닥칠 것은 명확한 것 같으며, 국내적으로는 급진전은 없으나 남북의 회담이 진행되고 있고 경제적으로는 이른바 선발개도국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가 하는 기로에 서있게 된 것 같다. 어쨌든 이제까지 세계 건축계에서 가장 사각지대의 하나였던 우리나라에도 서서히 외국의 유명 건축가들이 알게 모르게 드나들게 되었고 그동안 많은 건축가들이 외국방문을 통하거나, 외국에서 근무를 하거나 공부를 하거나 하여 점차 건축계의 인적 물적인 세대교체가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에 있다 하겠다. 설계사무소의 변화도 많이 눈에 띄게 되어서 이제까지의 소규모 아뜨리에 형태의 사무소로부터 점차 경영의 개선과 경영의 합리화, 정보화되는 사무소로 변환하고 있다. 아직 우리는 외국의 빠른 변화에 대응하려는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할 수 없다. 더우기 우리나라의 다른 분야에 비하여 건축은 아직도 그 패턴 자체가 외국건축의 모방과 외국조류의 흡입에 활력을 의지하고 있다고 한다면 과연이라고 할 것인가? 우리의 오리지널리티를 확고히 개발하여야 할 때라고 생각하여야 할 것이다. 과연 그것이 건축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자리잡아야 할 것인가는 우리의 노력에 전적으로 달려있는 것이다.

21C를 향한 우리의 對應姿勢

成仁洙/울산대학교 건축과 교수

아무도 그 이유를 모른다. 산업혁명이 일어난지 300여년이 지난 지금도, 역사학자들은 산업혁명이 일어난 원인을 정확히 규명하지 못하고 있다. 산업혁명이 인간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는 아직도 그 증상이 진행중이라서 아무도 결론을 내릴 수 없다. 그래도 세계는 변화할 것이며, 21세기는 다가오고, 뒤이어 태어난 인간은 이에 적응하며 살아갈 것이다. 21세기의 변화는 어떠한 것이며,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현재 인류가 처한 문제는 다음 4가지로 대별할 수 있다고 한다.

- ① 동서문제(자본주의와 공산주의 국가간의 문제)
- ② 남북문제(선진국과 후진국간의 문제)
- ③ G 7문제(세계정상 7개국가간의 견해차이)
- ④ 종족문제(각나라 안팎의 종족간의 분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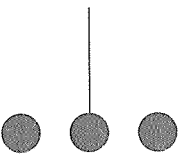
21세기의 인간을 위한 우선적인 과제는 인간들이 지구상에서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가이다. 핵에 의한 인류멸망에 대한 공포, 인구폭발의 위기상황, 지구 생존환경의 저하, 산업화된 국가와 발달도상국가 간의 격차, 개인적, 공공적 도덕의 타락 등이 국가들을 막론하고 고민거리이다.

21세기의 변화는 인간의 의지에 반대되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나, 그것이 낙관적이거나 비관적인 것도 아닌 현실로서의 미래일 것이다.

“.....컴퓨터와 통신기술을 근간으로 급격하게 다가오고 있는 정보사회에서는 자본주의와 사회주의가 동시에 끝날 것이다.” 최근 들어 소련을 포함한 동구권의 사회주의 국가에서 벌어지고 있는 체제부정적인 변화가 결코 정보혁명이라는 문명사적 변화와 무관하지 않음을 토끼풀리는 지적하기도 한다. 우리에게 희망을, 불안을 동시에 안겨다 주는 21세기에는 정보화사회에서 인간들이 서로 정보를 어떻게 교환하게 되는가에 따라, 建築士로서의 행동반경도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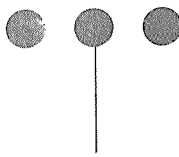
정보를 세계적으로 주고받는 정보화사회를 맞이하며,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남북문제의 하나인 우루과이라운드를 우리자신의 문제로 받아들여야 한다. 앞으로의 세계경제조건을 좌우할 우루과이라운드로부터 21세기의 변화는 가속화할 것이다. 2차세계대전기간 이전부터, 산업이 급속도로 신장하여 세계무역시장을 독점해 온 미국이, 1980년대에 이르러서는 개발도상국가들의 저렴한 우수한 상품때문에, 고질적인 무역적자국으로 전락하게 되었다. (최초적자 1958년 발생) 그 원인이 GATT 체제하의 자유교역에 있다고 판단한 미국은 GATT의 본래 취지대로 자유로운 국제간의 상품교역이 이루어지도록 협정을 강화할 필요를 느낀 것이다.

한편으로 일본과 후진 개발도상국가들과 경쟁을 해야하는 미국으로서는 눈에 보이는 공산품 보다는 생산량이 풍부한 농산품과 함께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상품으로 금융, 보험, 통신, 건설 등의 서비스 분야를 수출상품으로 내세우게 된 것이다. 미국으로서는 충분히 경쟁을 할 수 있다고 생각된 분야이다. 이 부분에서 비교적 열세에 있는 개발도상국가들은 선진국의 서비스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완강하게 버티고 있다.



21세기의 변화는 인간의 의지에 반대되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나, 그것이 낙관적이거나 비관적인 것도 아닌 현실로서의 미래일 것이다.

“.....컴퓨터와 통신기술을 근간으로 급격하게 다가오고 있는 정보사회에서는 자본주의와 사회주의가 동시에 끝날 것이다.” 최근 들어 소련을 포함한 동구권의 사회주의 국가에서 벌어지고 있는 체제부정적인 변화가 결코 정보혁명이라는 문명사적 변화와 무관하지 않음을 토끼풀리는 지적하기도 한다. 우리에게 희망을, 불안을 동시에 안겨다 주는 21세기에는 정보화사회에서 인간들이 서로 정보를 어떻게 교환하게 되는가에 따라, 建築士로서의 행동반경도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우리로서 주목할 만한 것은 서비스품목으로 건설산업이 미국을 포함한 선진국에서 수출품목대상이 끼여있다는 것이다. 89년에는 건설, 통신, 교통, 관광, 전문직업서비스 등 6개 분야에 관한 분야별 검토가 시행되었는데, 우루과이라운드의 역사적 배경은 표와 같다.

우루과이협상의 목표는 다음과 같다.

“서비스의 자유로운 국제간 거래, 각국의 제한사항을 완전히 공개, 개방한 상태에서, 개도국의 입장을 생각해서 점진적으로 서비스의 폭을 확대해가는 상품자유거래의 GATT 협정보다 더 강력한 多者間협정을 체결하자. 이 협정은 교역당사국의 경제성장과 개도국의 개발을 촉진하여야 하며, 모든 당사국의 국내법규와 정책목표를 존중하여야 한다. 이를 궁극적인 우루과이라운드 서비스 협정의 목표로 하자는 것이다.”

아무리 문구가 아름답고 후진국의 입장을 고려해 준다해도, 이러한 목표가 선진국, 개발도상국가나 후진국가중에서 어느 입장을 위한 것인지 자명한 일이다. 1986년 우루과이에서 각료회의를 통해 정식으로 서비스협상개시가 선언되었다.

서비스의 교역은 아래와 같은 거래를 포함한다. 즉, 서비스의 국경간 이동, 소비자의 국경간 이동, 생산요소의 국경간 이동이 포함된다. 서비스의 국경간 이동이란 「모든 자료와 정보의 이동」 및 「同 목적달성을 위한 공중통신망」과 국내유통망의 이용을 포함한다는 것이다.

우루과이 라운드는 협상타결 실패로 연기되었다. 대신 미국은 雙務통상 협정으로 이를 나라별로 해결하고자 하고 있다. 한국에 대해서도 1차적으로, 소매시장 개방압력(한국경제신문, 1990. 12. 16)으로 자동차, 화장품, 서적, 의류 등 4품목에 대한 국내시장 개방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건설이 빠져있는 것으로 중요도가 낮다고는 하나, 미국이 포기할 것 같지는 않다.

한국의 건축인들은 어떠한 준비를 해야하고, 건축인의 자세는 어떠해야 하나? 전문화가 미흡한 건축설계 분야는 어떤 대비를 하여야 하며, 우루과이협상을 통해 우리가 얻을 것은 무엇이고 잃을 것은 무엇인가? 시장개방 압력을 받게 될터인데 우리는 무엇을 준비하여, 건설부나 상공부를 향해 대안으로서 무엇을 제안할 수 있는가? 또,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어떠한 작업이 필요하고 누가 할 수 있는가? 건축계의 패쇄적 현상은 국제경쟁력 확보에 장애가 되지 않을까 우려되는 바는 많다.

턴키베이스에서와 같이 건축설계작업이 시공의 한 단계로 가볍게 인식되어온 것이 사실이라면, 이를 효과적으로 막지 못한 결과에 대한 책임도 우리가 져야한다. 건축을 예술작품과 공업생산품중 어느 것으로 보느냐에 따라 건축의 입장이 달라질텐데, 이것은 우리들의 자의적인 해석의 문제가 아니라, 외국정부가 또는 우리정부가 이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에 따라 좌우될 것이나, 이것이 건축사에게 유리할 것 같지는 않다. 건축사법으로 설계에 관한 참여를 제한한다해도, 외력에 의해 풀리기는 시기의 문제만을 남기고 있을지 모른다.

이상과 같이 단계에서 건축인으로서 준비할 것은 개인적인 것과 사회(단체나 협회를 통한)적인 것으로 나눌 수 있다.

A. 정보화 사회를 맞으며

앞으로 대기업이나 일반회사들이

경영정보시스템(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 MIS)를 채택하여 운영한다면, 건축사에게도 그러한 방법으로 대안을 요구해 올 것이다. 즉, 경영정보시스템이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조직에 있어서, 경영, 그리고 의사결정 등을 지원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인간과 기계사이의 이 시스템에는 컴퓨터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업무의 절차, 경영과 의사결정 모형, 그리고 데이터 베이스 기술 등이 이용된다.”

이러한 방법을 이용해 구하고자 하는 해결책들은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 ①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한 지능적 모형
 - ② 가능한 해결책을 찾아 분석하기 위한 의사결정모형
 - ③ 최적해결책을 제공하는 최적화 모형
 - ④ 만족할 만한 해결책에 따라 결정하는 충족모형
- 건축주들이 어떠한 것을 요구해 올지라도 이에 대응할 분석, 판단능력을 키워야 할 것이다.

년도	허용업무 내용(1차 시안)
~1993년	현행대로 국내업체와 합작투자조건, 토목건축특수전문 시공업분야
1994년 이후	토목건축업 전면개방
1996년 이후	건축사업, 감리전문업 전면개방

년도	허용공사비 한도	허용업무 내용(2차 시안)
1992~94년	50억 이상	토목공사에 대한 외국업체 참여
	30억 이상	토목공사에 대한 외국업체 참여
1994년 이후	50억 이상의 대형 공사	토목 : 국내업체와 공동도급 건축 : 국내건축사와 공동계약에 의한 외국건축사사무소 국내진출허용
	100억 이상의 건설공사	외국감리전문업체의 참여 허용
	국내업체 보호를 위한 예 상 단 서 조항	① 일정부분 한국에 하도급 의무화 ② 일정비율이상 국산기자재 사용 의무화 ③ 외국건설업체에 기능인력 양성의무 부과 ④ 턴키공사발주 확대 ⑤ 고급기술인력양성을 위한 건설전문대학 설립 ⑥ 문화보호를 위하여(고유건축양식으로 건축하는 경우) 안보, 국방시설의 경우, 외국업체 참여 배제시킬 수 있다.

과거에는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나지 못하면 '문전박대'받았다고 말할 했다. 정보화시대에 건축사들이 모니터앞에서 박대받지 않고, 건축주를 컴퓨터를 통해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건축주들이 건축사에게 요구해 오는 전달매체에 대한 준비를 해야 하는 것이 1차적 의무일 것이며, 그것은 직원의 힘을 빌어도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정보전달매체가 지니는 제한을 뛰어넘어 매체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 21세기를 맞아 창조적인 건축사가 해야 할 바가 아닌가 생각된다. 즉, 개인적 차원으로 미래를 맞을 준비를 하자는 말이다. 시대변화의 충격을 흡수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한다. 아마도 현재에 충실한 분이면 가능하리라 본다.

사무소의 입장에서 직원재교육을 통해 직원의 능력을 배양한다. 저부가가치에서 고부가가치산업으로의 전환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설계비의 현실화를 뛰어넘어 설계를 위해 이상적인 조건을 갖출 수 있도록 개인적으로나 단체를 통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사무자동화에 적응하도록 한다. 일반기업의 MIS 에 적용할 수 있도록 사무소구조를 가동한다.

얼굴을 마주해야만 업무가 추진되기에는 교통이 혼잡하고, 길에서 시간을 허비하게 된다. 또, 자료를 구하는 시간보다 이를 판단하는데 드는 시간이 너무 적기 때문이다. 설계를 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다 보면, 실제로 설계할 시간은 적다. 우리의 관행이 그러하지는 않지만, 시간을 벌고, 정보화사회를 효과적으로 맞이하기 위해서라도 합리적인 사고도 필요하다.

B. 우루과이 라운드에 대한 대처

건축사협회나 3단체의 입장에서 해야 할 일이 많다고 생각된다.

1. 우루과이 라운드에 대한 건축인의 의견이 모아져서, 이에 따라 대처해야 하며, 정부입장대로 피할 수 없는 것이라면, 시기선택의 주도권을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 유리할 것이다. 관련업계의 반발이란 일을 지연시키기도 하지만, 정부로서는 협상의 카드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2. 건설업분야는 외국의 참여를 생각해서 준비를 많이 하는 듯한데, 설계분야는 피동적이라는 인상이 든다. 건설부에서 알아서 해주는 범위내에서 받아들이기 보다는 조건이나 단서를 건축인 스스로 요구해야 할 것이다.
3. 이 문제에 피동적이라면, 그것은 우리가 외국에 나가서 효과적으로 설계를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일 수도 있는데, 현실적으로 이것은 어렵다. 국내 일을 잠식당하지 않고, 선의의 경쟁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도 능동적이어야 할 것이다.
4. 현재 설계를 발주하는 관행에 대해 발주처들이 면밀히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없을지 미리 준비하여, 필요한 사항을 건설부에 주문해야 할 것이다.
5. 외국업체와의 공동계약을 통해 설계를 하고자 할 때, 기본적으로는 건축사의 자유에 속하는 일이며, 대형설계사무소나 엔지니어링등은 별문제가 없을 것이나, 아틀리에를 원하는 사무소라도, 계약상의 불이익이 없이 외국업체와의 팀워크를 유지하며 작품을 할 수 있도록, 협회에서 공동으로 외국사무소와의

공동계약을 위한 기준계약서를 작성하고, 법률적 자문을 충분히 구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감정으로 말하지만, 그들은 계약으로 말한다.

6. 외국 설계사무소와 협력을 하고 싶어도, 방법이 어려운 사무소를 위해 알선창구를 마련하여, 충분히 필요한 자격을 갖춘 사무소를 만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이것이 건축사협회의 일이라고 생각되지 않는다.
7. 건축에 관한 종합정보센터를 운영한다. 건축박물관을 운영하여 정보를 축적하고, 산재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취합하여 정리한다. 역으로 외국의 설계를 수주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이를 위해 연구인력 해외파견을 통한 자의적인 정보수집을 해야하고, 나라별 법규와 규제에 관한 연구도 해야한다. 외국의 설계사무소, 아틀리에에 운영에 관한 정보교환도 필요하다.
8. 세계가 하나의 무역시장으로 좁아진다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재료의 문제에 봉착하게 될 것이다. 과제지침에 맞는 조건과 성능의 제품을 고르다 보면, 기본적 자재로 가능한 국산화비율내에 드는 자재를 제외하고, 어쩔 수 없이 외제를 쓰게 될 것이다. 건축자재의 모듈화와 효과적인 품질관리가 필요하며, 제조업자것만이 아닌 장기사용경험에 의한 협회자체의 자체평가보고서가 구비되어야 할 것이다. 산업체의 노력에 의하는 일이지는 하지만 소비자의 입장에서 외국제품에 버금가는 제품이 있어야 선의의 경쟁도 가능하다. 외국들의 설계자체 보다는 우수한 건자재를 합법적으로 팔기위해 설계도면과 시방서를 필요로 할지 모른다.
9. 외국에 대해 피상적이 아닌 충분한 이해를 해야하고, 한국을 소개하기 위해, 우리 것에 대한 연구를 지원한다. 설계발주를 통해 한국의 전통적인 것을 공동으로 모색할 수 있도록 하자. 또, 기술협력을 적극적 측면에서 수용한다. 기술협력의 허가기준을 강화하기 위한 입법요구를 한다. 지속적으로 외국건축가들의 활동상황을 바라보되, 우리만의 과제를 잊지 않도록 하자.
10. 그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있다. 피상적인 여행이 아닌 효과적 건축기행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지속적인 대정부, 대언론 홍보 및 요구를 한다. 자발적인 대안장구를 통해 우루과이대책을 마련한다. 협상안을 효과적으로 파악하여 피해가 적도록 유도조항을 설치한다.
11.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스스로의 자세이며, 존경하는 모든 건축사들의 노고와 단합에 의해 대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영화업계의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회원전체의 협동을 바탕으로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영화감독들이 U.I.P. 직접 배급에 봉착해 시위를 하고, 극장에 뺨을 풀어 놓는등 법석을 떠다해도, 행차후의 나팔격이 되었을 뿐이다. 영화 배급업자들은 그들의 이익을 위해 U.I.P. 직배에 참여하고 있다. 더우기 배급업자들은 감독선임의 능력도 있는 법이다. 가끔 외국에 출품해서 감독들이 수상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소수이다. 건축사협회는 회원의 권익을 위해 어떠한 대처를 하려는지, 회원과 임원 여러분에게 묻고 싶다.

갈 길은 멀고 험하다

趙仁淑/건축사사무소 다리건축

드문일이기는 하지만 누군가가 설계의뢰를 해오면 겁이 더러난다. 과연 제대로 해줄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이다. 그동안 면허증을 한 번 갱신하고도 일 년 이상이 지났는데도 이렇게 할 건물이 남은 게 없고 아직도 병아리 신세를 못 면하고 허덕거리고 있다. 더욱 딱한 일은 이거다하는 무엇이 안 보이는 것이다. 그냥그냥 하려면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으나 제도판 앞에 앉아 자를 잡고 연필을 잡는 순간부터 팍 막히기 시작한다. 본 것, 들은 것이 아무것도 없으면 막힘없이 줄줄 풀릴텐데 정답은 잘 몰라도 이게 아니라는 것은 안다. 아는 것이 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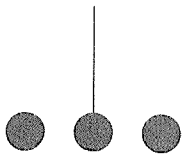
아침에 출근하여 전화 몇 통 주고 받고, 점심먹고 잠깐 나갔다 오면 하루가 가버린다. 다들 퇴근하고 나면 잠시 앉아 이것저것 시작해본다. 어찌다 밤에도 그냥 앉아 있어본다. 매일밤을 그렇게 지낼 수는 없는 노릇이니 결국 집으로 가게 된다. 이렇게 며칠 지내고 나면 한 달이 가고, 두 달이 가고 일 년이 눈 깜박 할 사이에 지나간다. 골프를 하는 것도 아니고 술을 마시는 것도 아닌데 시간은 여지없이 흘러가 버린다.

그동안 무엇을 어떻게 설계하였는가? 무엇을 공부하였고 무엇을 듣고 보았는가 돌이켜 보면 참으로 한심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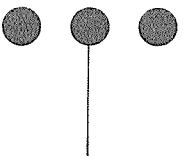
최근 외국에서 초청하여 요즈음 나와 함께 일하는 7씨를 보며 많은 것을 느낀다. 이 친구 하루에 열시간 이상 집중하여 일을 한다. 외국의 대가들이 하루 여덟시간 일 한다면 그들보다 서너시간을 더 일하는 것이다. 내가 차분히 앉아 일하는 시간은 과연 몇시간인가? 하루에 여덟 시간씩 손해를 본다고 하면 일주일이면 최소 40시간, 일 년이면 적어도 2천시간 이상의 차이가 난다. 프로젝트 하나 수행하는데 6개월 걸린다면 약 1천시간 고민을 더 하는 것이고, 설계를 놓고 고민하는 시간이 그정도 차이난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수준차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자기 사무실을 열고 10년이 흐른 후를 상상해보자. 1년에 2천시간이면 10년 지나면 2만 시간의 고민의 차이가 난다. 고민의 정도가 우선량적으로 다른데 어떻게 좋은 작품을 기대할 수가 있겠는가? 물론 운이 좋아 천재를 타고난 건축가도 있다. 천재의 아이디어도 건축에 있어서는 다듬지 않으면 쓰기에 불편한 것으로 밖에는 남지 않는다.

시장개방이 된다고 난리다. 그동안 우리는 무엇을 했는가? 아직도 우리는 건축 그 자체를 놓고 고민하는 시간보다는 사무실 운영을 위해 움직여야 하는 시간이 더 필요하고, 건축가 스스로가 만든 갖가지 제도의 굴레 속에서 헤어나질 못하고 있다. 모두가 다 안다. 알아도 어쩔 수 없다.

앞으로 10년 후면 소위 말하는 21세기로 접어든다. 그때가 되면 이제 입문하는 사람들이 한창 일할 때이다. 지금 건축에 입문하는 졸업생들에게는 어떻게 시작할까가 큰 숙제거리이다. 사무실을 열고 있는 선배된 입장에서 이제 입문하는 후배들에게 무엇을 보여줄 수 있으며 무엇을 줄 수 있겠는가? 내 사무소에 들어온 이번 졸업예정자에게 요즈음 무척 부끄럽다. 원하지 않아도 날마다



기술적인 측면에서 엄청난 발전을 했음에는 틀림이 없다. 아무도 우리처럼 빨리 흡수하고 소화하는 능력을 가진 국민은 없을 것이다. 이제와서 우리들은 그 속에 담겨져 있었어야만 하는 정신을 찾고 있다. 이제는 돌아볼 수 있는 여유가 생긴 것이다. 그동안 너무 급급해서 서둘러 여기까지는 왔는데 이제는 더이상 그냥 가기만해서는 안되는 일이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며 우리건축이 나아가야 할 길은 각자가 알아서 찾을 일이다. 갈 길은 멀고 험할 뿐이다.



돌아다녀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전화 붙잡고 앉아 있고 제도판 위에는 며칠이 지나도록 같은 종이가 붙어있고 그렇다고 공부를 따로이 하는 것도 아니고, 남들과 노는 것도 아니고 괜히 허둥대기만 하는 것이다. 학생 때부터 1년에 2천시간 이상씩 차이가 났다고 하면 학창시절 4~5년에, 사무실 생활 10년이라 가정하면 자기 사무소 시작하는 동년배의 외국인 건축가와와 능력차이란 적어도 3만시간이 되는 것이다. 시장개방이 되면 이런 사람들과의 경쟁을 피할 수 없다. 그렇다면 그동안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한국적 아이덴티티가 있는 그 무엇인가라도 개척해 놓았는가? 얼마전 불가리아 소피아에 약 한 달간 신도시설계 워크숍에 참석했을 때 일이다. 같은 그룹이었던 유럽의 한 건축가가 '너희 한국은 올림픽을 치룬 부자 나라인 줄 아는데 TV를 통해 보니까 인터넷서널 건축박에는 눈에 안 띠더라 너희가 미국의 속국이었던 적이 있느냐'는 질문을 해왔다. 순간 발끈해서 이려고 저러고를 변명(?)했는데 한편 돌이켜보니 우리들의 책임이 이만저만 큰 게 아니다. 물론 어느 나라이건 대도시는 같은 실정이다. 자본주의 국가로 가면 더욱 그럴 수밖에 없고, 현재 개방의 물결을 타고 과거에는 미국영향을 받지 않았었던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국가들도 인터넷서널 건축과 하이테크에 눈을 돌리고 있다. 허나 우리는 자기발로 서기도 전에 미국의 영향을 너무 받아 빨도 내장도 다 드러내놓고 만 것이다. 이제와서 거두어 들이기에는 너무 늦은 감이 없지 않다. 끊임없이 전통이니 한국적인 것이니 하는 논의가 있어 왔으나 설계하는 사람은 설계하고 논의하는 사람은 논의만 한다. 수평교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요즘 재미있는 현상중의 하나는 외국에 유학가서 공부하는 학생들은 그곳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한국건축을 주제로 택한다. 한국의 학생들은 외국작가들의 작품을 모방한다. 또 하나는 서울지역의 학생들의 대다수가 유학의 길에 오른다. 지방의 웬만한 학생들은 졸업 후 모두 서울로 올라온다. 지방자치제를 하려는데 역행하고 있다. 한편 서울에서 일하던 건축사가 타지역에 사무실을 차리려면 여지없이 배척당하고 만다. 서울은 점점 복잡해지고 수요공급의 균형이 깨지니 남의 입 속에 있는 떡이라도 아직 삼키지만 않았으면 뺏어먹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 되고 만다. 이런 와중에 살아남기 위해 울타리를 자꾸만 친다. 속이 든든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요즘 물밀듯이 쏟아져 나오는 현상설계공모를 보면 참 재미있다. 수 천평되는 건물의 계획설계 기간이 한달도 채 안되는 것부터 시작하여 자격제한은 왜 그리 많은지, 설계 아이디어 공모에 전문감리자격이 왜 필요한지 또한 지금 우리 실정에 왜 그리 많은 기념관들 및 전망대들이 필요한지 이해할 수가 없다. 일이기 때문에 필요성에 대해 생각해 볼 겨를이 없이 너도 나도 참가를 한다. 좋은 건축을 하겠다고 각종 어려운 문구들을 써가며 이잡지 저잡지 기고를 하는 온갖 작품을 창피한 줄 모르고 잡지에

게제하고는 수 십 권씩 사두었다가 고객에게 한 권씩 준다. 유명 건축가라는 것을 알리기 위함이다. 학연·지연을 통해 확보했던 일들이 바닥이 드러날 즈음이면 여기저기서 두 배씩 주고 스카웃해 왔던 인력들을 내 보내야한다. 이러면서도 얼토당토않은 현상설계 조건에 아무도 반발하지 않는다. 오히려 공고가 나는 순간 아니 그 이전부터 연줄을 찾기 시작한다. 내정자가 있다는 냄새가 나도 아랑곳 않는다. 힘센 놈이 이기기 마련이니까. 과연 이런 모습들을 계속 보여줄 것인가? 요즘 졸업생들의 사무소 입사의 최대의 목표는 5년 후 면허따서 사무실 차리는 일이다. 이유인즉 좀 더 낡은 건축을 하기 위해서이다. 수 천 만원씩 들여 사무소개업을 한 후 경영에 허덕이다 보면 선배들이 해왔던 길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다. 무언가 일을 만들어야 하고 울타리를 쳐야 하는 것이다. 시장개방이 되어도 계속적으로 울타리만 치고 있을 수 있을까?

기술적인 측면에서 엄청난 발전을 했음에는 틀림이 없다. 아무도 우리처럼 빨리 흡수하고 소화하는 능력을 가진 국민은 없을 것이다. 이제와서 우리들은 그 속에 담겨져 있었어야만 하는 정신을 찾고 있다. 이제는 돌아볼 수 있는 여유가 생긴 것이다. 그동안 너무 급급해서 서둘러 여기까지는 왔는데 이제는 더이상 그냥 가기만 해서는 안되는 일이다. 우리가 해야할 일이 무엇이며 우리건축이 나아가야 할 길은 각자가 알아서 찾을 일이다. 갈 길은 멀고 험할 뿐이다.